

한국의 대ASEAN 외교

서 정 인*

I. 머리말

이 글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0여년간 한국과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한-아세안 관계가 아세안의 발전 및 동아시아 협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하여 왔으므로, 한-아세안 관계 뿐 아니라, 아세안의 발전과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10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필리핀 등과는 길게는 60여년 전부터 각각 양자 관계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한-아세안 관계보다 역사가 길고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아세안이 2015년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지역 협력 기구로서 집단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아세안 전체 관계를 집중 조망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아세안 각국간 양자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 외교통상부 남아태국 심의관. jisuh88@mofat.go.kr

II. 아세안은 어디까지 왔나

1. 발전 과정

아세안은 1967년 이래 40년 이상 동안 크게 4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유럽통합을 제외하고 가장 모범적 지역 협력 기구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아세안은 각 단계 마다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을 증진하여 왔다.

1단계는 1967년 창설부터 1970년 전반의 협력 조성 시기로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전 격화, 인도지나¹⁾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급속한 확대, 1970년대 초 미.중 관계 개선 등 지역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과 내부적으로도 말레이시아-필리핀 간 영토 문제 등 아세안 회원국간 갈등과 대립의 성공적 해결로 인해 내부 결속 기초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아세안 기금 창설(1969년), 1955년 반동선언에 입각하여 동남아의 중립화를 강조하는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1971년)이 채택되었다.

2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냉전기의 지역협력 강화 시기로서 아세안은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치·경제 각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강조하는 아세안 협력선언 I(일명 발리 선언 I) 채택, ZOPFAN 실현의 수단으로 체약국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한 행동강령 성격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체결, 아세안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 경제면에서는 아세안 공업 프로젝트(1977년), 아

1) 인도지나는 인도와 차이나(중국)의 앞 글자를 조합한 용어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을 지칭하며,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도지나보다는 대륙동남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동남아는 크게 대륙동남아와 해양동남아로 구분되는데, 해양동남아는 도서국가인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를 지칭).

세안 특혜무역협정 체결 등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도 호주(1974년), 뉴질랜드(1975년), EU·일본·캐나다·미국(1977년) 등 역외 선진국과 대화관계 수립을 통해 역외 선진국과 아세안간 원조·수혜 경제협력 체제를 마련하였다.

3단계는 냉전 후 1990년대의 지역공동체로서의 확대발전 시기이며, 아세안은 냉전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지나 4개국의 신규회원 가입을 통한 ‘아세안 10’ 달성(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일환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추진 합의(1992년), 역내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창설(1994년)하였으며,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 경제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1997년 아세안의 장기 발전 계획인 ‘아세안 비전 2020’ 채택, 1998년 비전 2020 실전을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 채택)하는 한편, 한·중·일 등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3 정상회의 최초 개최(1997년)를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4단계는 2000년대 이후 아세안 공동체 추진 시기로서 중국·인도의 부상으로 외국 투자의 대중국 유입 확대와 대아세안 유입 급감(1991년 아세안 56% : 중국 18%, 2002년 아세안 18% : 중국 53%로 역전)에 따른 대응 일환으로 아세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체 창설을 추진키로 한 ‘아세안 협력선언II’(발리 선언 II, 2003년) 채택, 신규 회원국간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을 위해 비엔티엔 행동계획 채택(2004년), 당초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던 아세안공동체 창설을 2015년까지 조기 추진을 결정한 세부 선언 채택(2007년), 아세안에 지역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제도화를 규정한 아세안 헌장 발효(2008년 12월), 유엔 상주 대표부와 같은 성격의

자카르타내 주아세안 상주 대표부 설치(2009년), 정치·안보 공동체 계획, 경제공동체 계획,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 등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채택(2009년), 아세안의 물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조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에 관한 하노이 선언 채택(2010년)을 통해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해 착실히 이행 중이다(외교통상부 2011: 20-23).

2. 성공 배경

아세안은 창설 당시 인도지나의 공산주의 확산, 1970년 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야기된 공동의 위기, 냉전 구도의 미·소 양진영 중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 경험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같은 역내의 도전에 직면하여 일부 한계점을 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적절히 대응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 배경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세안 각국이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편입되어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역외 투자의 아세안 유입 투자 증대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시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하고 아세안 차원에서도 자체 FTA는 물론 한·중·일 등 주요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경쟁력을 높여왔다.

둘째, 창설 초기부터 역내 뛰어난 리더, 특히 인니의 만형격 역할(first among equals)이다. 인니는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중소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트 대통령의 1960년대 중반 이래 32년간 집권 기간 동안 여타 중소 국가들이 단순한 형식을 넘어 동등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세안의 협의와 컨센서스 방식은 아세안 중소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에, 인니에게는 일방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였다. 인니가 이러한 제약을 수용한 것은 아세안 사무국의 자카르타 소재와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것을 중시한 결과로서 아세안이 여타 아시아 지역과 달리 성공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Tay 2010: 52-53). 혹자는 아세안내 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로서 서남아의 지역협력의 발전이 더딘 이유로 서남아판 인니의 부재를 꼽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 아세안은 각국의 정치 체제, 경제발전, 국력 차이 등 다양성과 식민지 경험에 따른 주권 문제에 대한 과도한 민감한 태도로 인해 창설 이후 아세안 고유의 운영방식(ASEAN Way)²⁾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도모해 온 결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었다(야마모토 2007: 52-53; Tay 2010: 56; Goh2011).

3. 향후 전망 및 과제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국제이슈에 대한 아세안 공동 강령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아세안 정부간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아세안 현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아세안 현인그룹은 아세안의 궁극적 목표점으로서 아세안 연합(ASEAN Union) 비전(2007년 1월)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이 2015년 실현 목표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의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2) 67년 아세안 출범이후 일관되게 지켜온 아세안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서 내정불간섭 원칙과 컨센서스 방식 의미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가 아세안 공동체 견인차(catalyst)로서 핵심이다. 정치·안보 공동체는 안보협력의 확대, 사회·문화 공동체는 인구·교육·전염병 예방 등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강화를 지향하는 일반적 협력을 의미한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FTA 플러스’ 정도로 보면 적절할 것이다. 향후 아세안이 경제통합의 4단계 중 1단계 FTA를 지나 2단계 관세동맹, 3단계 공동시장, 4단계 경제 통화동맹으로 발전해 나갈지 여부는 대내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아세안내 개발 격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관세동맹 달성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박번순 2011: 14-15).

아세안은 2015년 경제공동체 실현과 2015년 이후 더욱 진전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째, 아세안 성공 요인에서 제시한 아세안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아세안내 신·구 회원국간 개발격차가 커서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입은 국가에 대해 소득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공동정책이 부재하다는 점, 아세안 각국의 기술 역량 부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 최근 자원수출 호조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인니,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 주요국들이 더치 디지즈 현상³⁾을 겪을 가능성, 미·유럽시장의 정체에 따른 대체 수요시장의 대안인 중국시장도 중국의 국내 기업에 밀릴 가능성이 아세안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3) 화란은 한때 북해 유전 발견으로 경제호황의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원유수입→환율절상→제조업 수출 경쟁력 악화, 이와 동시에 원유 채굴 부문 호황 → 소비급증 →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 → 수출 경쟁력 악화로 제조업 기반 약화 초래하여 원유 개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화란의 사례는 석유 등 자연자원 풍부함이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

둘째, 국내정세 불안, 인근국간 분쟁, 민주화 문제, 미얀마 등 신규 회원국의 의장국 수임 등 리더십 약화 문제가 아세안 공동체 실현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정세 불안이 아세안 공동체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 상징적인 사례가 2006년 세부 정상회의가 테러위협으로 연기된데 이어, 2008년 태국 반정부 시위로 2차례 연기 끝에 2008년에는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얀마는 2006년 순서에 따라 의장국 수임 예정이었으나 미·유럽 등 서방의 반대로 의장국이 변경되었다. 미얀마 민주화가 일응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있고, 여타 아세안내 민주화 진전이 더딘 국가에서 민주화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경우 공동체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아세안 공동체 실현 목표 연도 2015년까지 금년부터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 신규 회원국 또는 소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 약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세안 방식은 개별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민족·정치·경제체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 회원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간 아세안의 지속적 운영에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해 온 반면, 또 한편으로는 컨센서스 방식은 아세안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의 준수로 인해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아세안 역할을 무력화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편안해 하는 속도의 최소 공배수적 협력에 집착할 경우 아세안 공동체 진전은 물론, 나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넷째, 아세안이 ARF, ASEAN+3, ASEAN+8 국방장관회의, EAS 등 다층적인 역내 협력체에서 회의 개최, 의제 선정 등 중심성을 발휘하여왔던 것으로 평가되나, 2011년 미국, 러시아의 EAS 가입으로

지역협약체 방향과 운영방식이 당장은 아니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세안 주도의 역내협약체가 말의 잔치가 아닌 각각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가 있다.

Ⅲ. 한·아세안 관계

1. 한국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

첫째, 전략적 요충지이다.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인도양 그리고 미주·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동산 원유 등 각종 원자재와 상품을 실은 선박이 인도양을 거쳐 남중국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다. 15-16세기 말라카 왕국이 동서양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었다. 이러한 아세안은 15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주요 진출 대상이었으며, 최근에는 미·중 주요국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의 중동산 원유 가스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 공급로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둘째, 아세안은 동아시아 안정과 발전에 있어 균형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약자인 아세안이 대외정책 기본정책을 역외 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국간 관계에서 균형 중시 외교를 전개하여 어느 한 편에 서서 다른 편과의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세력을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JETRO 2009: 234-235). 이러한 전략은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경쟁과 갈등속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추구해 온 비동맹중립주의 외교정책이라는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 사이에서 미국, 중국과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아세안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북한 변수가 없는 아세안과는 다르지만, 우리로서도 아세안과 같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호적 균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볼 대목이다(이재현 2011: 13-14).

셋째, 단일 시장,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다. 아세안은 경제규모(국민총생산 1.2조)가 중국(07년 국민총생산 3.3조)보다 적으나 여타 브릭스 멤버인 인도(국민총생산 1.1조), 러시아(1.2조), 브라질(1.2조)와 비교시 손색이 없는 인구 5.9억 명의 큰 시장이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계기 유럽 시장의 장기간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시아 소비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세안 소비시장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미, EU 등 역외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생산기지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거대시장 중국과 인접하여 있고 해상, 육로를 통한 서남아·중동으로의 접근도 용이해 생산기지로서도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향후 5-10년 후 중국 리스크 헷징 전략 일환으로 China Plus One 정책의 최유력 생산기지 후보지로서 베트남, 싱가포르 주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이다(JETRO 2007: 39-72). 05.12월 골드만 삭스는 BRICs와 더불어 21세기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국가로,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인니, 베트남, 필리핀을 선정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 19일자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브릭스의 뒤를 이을 새로운 다크호스로 CIVETS(콜롬비아, 인니,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라는 그룹으로 명명하여 차기 경제 대국(tiger economics)으로 아세안국가 중 인니와 베트남을 거론하였다. 아세안 주요국(인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중산층(1인 당 5천 미불 기준) 이상 인구가 2009년 약 2억 명에서 2020년까지 4.3억 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아세안이 연계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일본, 중국 등 역외 대화상대국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실제 2009년 중국이 아세안 인프라 기금으로 150억불, 일본이 메콩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50억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아세안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카하시 2011: 48-50). 아세안은 우리의 교역, 투자, 건설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 파트너이며, 노동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으며, 최근 인니,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이 원전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원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원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국(2010년 교역 1,000억불/90억불 흑자, 2011년 1,200억불 전망, 2015년 1,500억불 목표), 제2의 투자대상지역(2010년 71억불)이자 제2의 건설수주지역(55억불)일 뿐 아니라, 인니(산림, 천연가스, 석유), 베트남(석유), 말레이시아(팜오일), 미얀마(석유, 가스, 광물), 브루나이(석유) 등 우리의 주요 자원공급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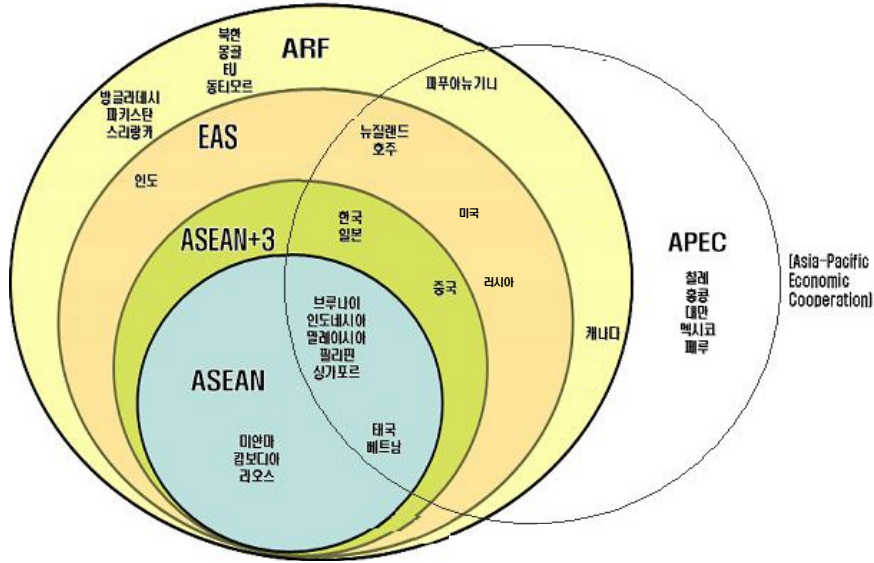
넷째, 아세안은 한류영향과 빈번한 양측 국민간 교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발휘될 수 있는 지역이다. 매년 320만명 이상 한국관광객이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고, 23만명 이상 우리 동포가 아세안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아세안 국민들도 매년 100만명 이상 한국을 방문하며, 2011년 9월 현재 한국내 아세안 근로자가 15만명, 다문화가족을 이뤄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

안인들도 5만명을 넘어 이주여성의 4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 국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드라마, K-POP, 영화, 음식 등 한류가 아세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의 영향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 뿐 아니라, 한국산 핸드폰, 가전제품, 내구재 선호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동남아연구소가 2008-2010년간 실시한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10개 국 가운데 한국 전반에 관한 인식이 가장 좋은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일본 외무성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6개국(베트남, 인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게 ‘아세안의 중요한 동반자’ 및 ‘미래 아세안의 중요한 동반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30-33%), 일본(28-23%), 미국(23-13%)을 우선 꼽고 한국(2-5%)을 호주, 인도, 유럽 등과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세안은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은 동아시아 역내 미, 중, 일 등 강대국간 힘의 공백을 적극 활용,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⁴⁾을 내세우며 ARF, ASEAN+3, EAS, 아세안+8 국방장관회의 등 동아시아 역내 다층적·다기능적 협력체 형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등 대화상대국들은 모두 아세안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4) 아세안 중심성은 동아시아 지역협의체계 구축에 있어 아세안이 추동력(driving force)을 가지고 중심적 역할(central role)을 수행한다는 당위개념으로서, 아세안+3, EAS, ARF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운용에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가하고 아세안 의장국이 지역 협의체 의장국을 겸입하면서 관련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의미

<그림 1> ASEAN 중심의 동심원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출처 : ASEAN 개황

2. 한·아세안 관계 발전

(1) 1단계 : 상설 협의체 교섭 및 초기 수립기(1991년 이전)

우리는 1970년 말부터 아세안과의 상설 협의 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세안은 남북한 문제에 말려들지 모른다는 우려와 한국의 국력에 비추어 실질적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여년 이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세안은 제3차 ASEAN정상회의(1987년 1월, 마닐라)에서 분야별 협의대상국(sectoral dialogue partner)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첫 번째로 한국을 선정하고, 1989년 7월 브루나이 제22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시 부분 대화관계 수립기로 하였으며, 우선 통상, 투자, 관

광 3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기술협력 및 문화교류 협력은 시간을 두고 검토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교장관과 아세안 상임위원장인 Alatas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간 서한 교환을 통해 한-아세안 부분 대화관계를 수립하였다.

1991년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은 한-아세안 완전대화관계(full dialogue)를 공식 결정하고 협력분야를 기존의 통상, 투자, 관광에 추가하여 기술협력, 개발협력, 인적자원분야로 확대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이 비선진국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대화관계를 수립한 것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1991년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 등 우리의 국력증가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되며, 1991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우리는 아세안확외교장관회의 및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참가로 아세안 및 여타 대화상대국과 대등하게 국제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은 우리의 유엔 가입 이전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다자 외교체제에 참가하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2단계 : 협력 확대기(1991-2000년)

한-아세안 양측은 대화관계 수립 이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한-아세안 대화(Korea-ASEAN Dialogue)를 1993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한 이후 정례화 왔으며, 2010년부터는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부응하여 아세안 참가자 레벨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한-아세안은 한-아세안 대화시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교역·투자·관광 등 경제협력 문제, 한-아세안 협력 사업 뿐 아니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준비와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에는 정상회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1994년

아세안 주도로 아태지역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 참가 계기로, 그간 경제 협력 위주의 한-아세안 협력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 테러 등 비전통 안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으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이슈가 논의되어 관련 내용이 의장성명에 반영되고 있다.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3) 3단계 : 협력 심화기(2000년 이후)

한-아세안은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계기로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채택하고 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0만불에서 300만불로 증액하였으며, 이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05년)과 2009년까지 행동계획 연례 이행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안보협력의 근간이 되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2004년) 및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성명 채택(2005년)을 통해 정치·안보 분야에서 역내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기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경제·관광·문화분야에서도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상품, 서비스, 투자 2005년 협정을 체결하고, 한-아세안 센터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010년 6월 제주에서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분야) 발표를 통해 아세안 연수생 총 7000명 초청, 해외봉사단 총

10,000명 파견 등 대아세안 ODA 규모를 2015년까지 2008년 지원규모의 2배로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 500만불로 증액, 2013-2017년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500만불 지원, 정부초청 장학생 2009년 109명에서 201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총 2억불의 기금 가운데 1억불을 아세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양측은 2010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2004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아세안내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2011년 10월 서울에서 제1차 한-메콩외교장관을 개최하여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환경·산림, 수자원 개발, 농업, 인적자원 개발 등 6개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매년 7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하고 3년에 한번씩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기로 하였다. 한-메콩 외교는 대아세안 다층적 협력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외교와 한-아세안 다자외교를 잇는 소지역 외교 추진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3. 협력 제도화

한-아세안 양측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점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정상에서 실무급까지 정치·안보, 경제, 정보통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개 협력 메카니즘이 운영될 정도로 한-아세안 관계는 상당 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야와 협의 레벨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매년 정상회의 1개, 외교, 경제, 정보통신, 국가적 범죄, 교통 각료회의 각 1개, 차관보급 6개, 국장급 2개, 실무급

10개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표 1> 한·아세안간 협력 메카니즘

분야	수준	정상	장관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분야별 협력체수
정무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확대외교장관 회의+ROK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ASEAN Seoul Committee				4
개발 협력				한-아세안 공동기획 심의위원회(JP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공동기획심의위원회 작업반회의 (JPRC WG) 	2
경제 통상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한-아세안 경제고위관리회의	아세안 관세국장회의 - ROK Consult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원산지관세 규정 Sub-Committee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한-아세안 서비스작업반 한-아세안 투자작업반 한-아세안 SPS/TBT 작업반 한-아세안 경제협력 작업반 관세조정위원회-ROK Customs Consultation ASEAN 표준·품질조정 위원회- ROK Dialogue Meeting 	11
ICT		한-아세안 방송통신·IT 장관회의	한-아세안 방송통신·IT 고위관리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TELSOM 작업반회의 	3
초국가 범죄		아세안초국가범죄장관회의 + ROK Consultation	아세안초국가범죄고위관리회의 + ROK Consultation				2
교통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 ROK Consultation	아세안 교통고위관리회의 + ROK Consultation				2
수준별 협력체수	1	5	6	2	10	24	

출처 : 한·아세안 현인그룹 보고서

한-아세안 양측간 경제분야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양측은 2004년 11월 한-아세안 FTA개시 선언 이후 기본 협정 및 분쟁해결 제도,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를 순차적으로 타결기로 하고 협상 진행을 한 결과 협정이 서명·발효되었다.⁵⁾

2011년 5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4년차 양측간 교역량은 발효 1년전보다 64.6%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 우리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46.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 활용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한-아세안간 교역증진,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 서울 소재 한-아세안 관련 최초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센터를 설치하였다. 한-아세안 센터는 아세안이 1993년 5월 제1차 한-아세안 대화에서 교역·투자·관광·문화 분야에서 한-아세안 관계증진을 위해 서울에 ‘아세안 진흥센터’라는 이름하에 설치를 요청해 온 오랜 현안이었으며, 1995년 한-아세안 협력사업으로 설치 비용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예산 사정상 추진할 수 없었다. 2007년 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아세안 센터 설립 지원의사를 표명한 후 2007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가 서명되어 2008년 12월 발효되었다. 한-아세안센터는 이사회, 집행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개발기획총무부, 무역투자부, 문화관광부, 정보자료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인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아세안측 직원들의 파견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기본 협정(2005년 12월, 2007년 6월 발표), 상품 협정(2006년 6월 서명, 2007년 6월 발효), 서비스 협정(2007년 11월 서명, 2009년 5월 발효), 투자협정(2009년 6월 서명, 2009년 9월 발효)

2009년 아세안이 아세안 상주대표들로 구성된 아세안 상주대표 위원회 출범 계기, 아세안과 미국, 일본이 아세안 사무국 소재 자카르타 중심의 아세안 상주 대표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이에 부응하여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현장에서 총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아세안 상주대표부를 2012년 상반기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아세안 상주대표부 설치는 2007년 외교부 남아태국 신설, 2009년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이어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더욱 공고히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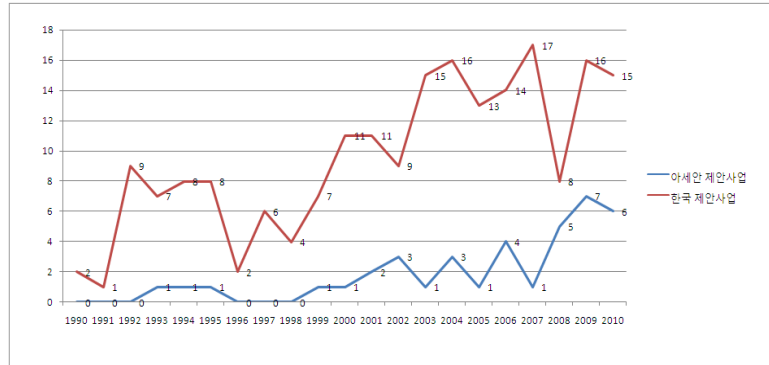
4. 협력 자원 및 실질 추진 사업: 연간 약 1,180만불⁶⁾

(1) 한-아세안 특별협력 기금: 연 5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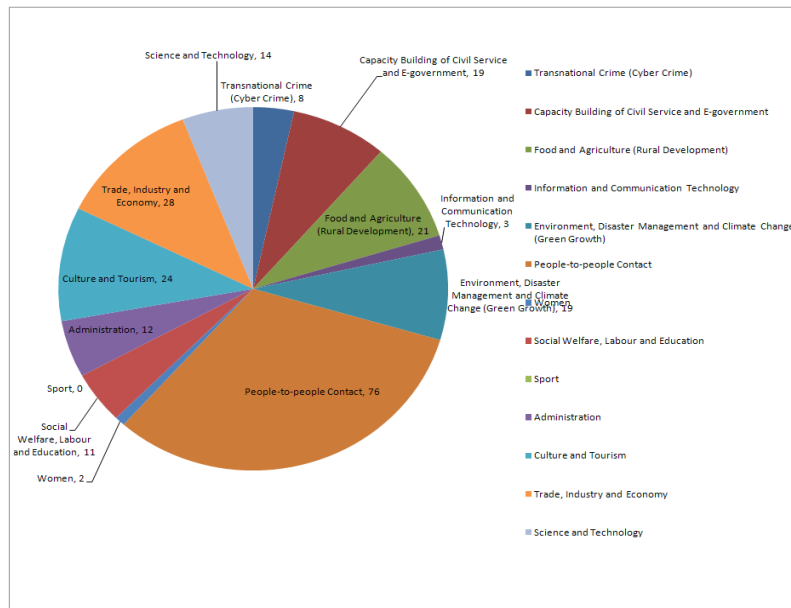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은 한-아세안간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 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며, 분야별 실질협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력사업과 인적 교류 사업 위주의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부분 대화관계 수립 후 1990년 100만불, 1991년 완전 대화관계 승격 계기 1992년부터 연 200만불, 200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계기 2005년부터 연 3백만불, 2006년 한-아세안 2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계기 2010년부터 연 500만불로 각각 증액되었다. 우리는 1990-2010년간 약 4,70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한-아세안 양측은 237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80%이상이 한국측 발굴 시행 사업임에 비추어 아세안 자신이 수요자 입장에서 더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6) 동 지원액은 우리의 대아세안 각국별 양자 유·무상원조 11.9억불(1987-2009년간 유상원조 6.9억불, 1991-2009년간 무상원조 4.9억불, 우리 전체 ODA의 26%)과 별도

<그림 2> 1990-2010년간 한·아세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



출처 :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출처 :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2011년 11월 한·아세안 양측은 2010년부터 연 5백만불 증액 계기 개별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단위 사업 접근에서 우선협력 분야별 프로그램형 접근 방식으로 변경기로 하고, 한-아세안 협력 미래 방향에 부합하는 9개 우선협력분야(정치-안보: 범죄, 행정역량 강화, 경제: ICT, 농업, 환경·녹색 성장, 사회·문화: 청소년, 여성, 복지·노동, 스포츠)를 선정기로 합의하였다.

(2)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기여: 연 130만불

우리는 아세안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간의 개발격차 완화와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에 3차에 걸쳐 2,000만불을 지원중이다. 제1차 실행계획(2003-2007년) 하에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사업 타당성조사 사업(2004-2006년 120만불, 미얀마-태국),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2004-2005년 87만불, 캄보디아) 역량 사업,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2004-2005년 95만불, 라오스),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지원 사업(2004-2005년 95만불, 미얀마), 정보통신 입법 지원 사업(2004-2005년 95만불, 베트남) 등 5개 사업에 500만불 지원하였고, 제2차 실행계획(2008-2012년) 지원 사업으로는 500만불 규모의 후발 4개국 대상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3차 실행계획(2013-2017년) 지원을 위해 1,000만불 지원(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500만불, 2010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500만불 서약) 예정이다.

(3)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 연 50만불

우리는 2008년부터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50만불씩 아세안 사무국에 송금하면 사무국이 예산집행기관에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로 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다. 2005년 한

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후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품분야 혜택에 초점을 둔 경제협력(협정 제3.1조)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한-아세안 양측은 경제협력 사업 발굴 및 사업시행 현황 점검을 위해 경제협력작업반을 설치하고 2008년 6월 이래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2011년 10월 현재 환경, 농업, ICT, 통관,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약 150만불 규모의 16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4) 한-아세안센터 예산 지원: 연 500만불

우리는 2009년 40억원, 2010년 44억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 투자,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그간 50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IV. 동아시아 협력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 계기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목표로 시작된 아세안+3(한·중·일)가 지난 15년간 정상회의 외에 외교, 경제, 재무, 에너지, 농업 등 24개의 분야별로, 각료회의, 고위급 회의, 국장급 회의 등 64개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각 협의체의 결정사항이 매년 약 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다. 아세안+3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력 메카니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의 주도로 1999년 구성된 트랙2의 EAVG(동아시아 비전그룹) I은 2001년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an East Asian community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의 청사진을 제공하였으며, 2002년 트랙1의 EASG(동아시아연구그룹)는 EAVG가 제시한 조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해야 할 중

단기 협력조치 26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지역차원의 금융기구 설립, 동아시아정상회의 설립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중·단기 협력조치가 아세안+3협력의 근간이자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3는 출범 계기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던 만큼, 금융협력이 여타 기능 협력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진전되어 왔으며, EASG 보고서가 나올 당시 양자간 스왑체제였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7)가 1,200억불 규모의 다자간 스왑체제로 발전하였고,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⁸⁾는 각 회원국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운영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⁹⁾는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 보증을 지원하여 역내 풍부한 외화 유동성이 역내투자자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 ASEAN+3 협의체 현황

수준 분야	정상	각료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전문가	여타 Track	총계
외교	Summit	FMM	SOM	CPR+3	CPR+3 WG		5
초국가적 범위		AMMTC+3	SOMTC+3		SOMTC+3 WG on Narcotics		3
행정			ACCSM+3				1
경제		AEM+3	SEOM+3				2
재무		AFMM+3	AFDM+3		- 6개 실무급 회의 - ABMI 포컬그룹 회의 - CMI 실무급 회의		13

- 7) 금융위기시 아세안+3 국가간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통합스왑체제(2010년 3월 조성)
규모 및 부담 비율: 1,200억불(한·중·일: 아세안=8:2, 한·중·일=1:2:2)
- 8) CMIM체제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 상황을 감시·분석하여 CMIM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기구 사무소는 싱가포르 소재
- 9) 아시아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기구로서 7억불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ADB내에 도입된 펀드형태로 설립 (한국 1억불, 중국·일본 각 2억불, 아세안 0.7억불, ADB 1.3억불 기여)

					- 전문가그룹 회의 - ETWG - APT 연구그룹		
중소기업					SMEWG+3		1
에너지		AME(M)+3	SOME+3		SOME+3 EPGG	3 SOME+3 Fora	6
환경		AEMM+3	ASOEN+3				2
농림		AMAF+3	- Special SOM AMAF+3 - Preparatory SOM AMAF+3				3
정보통신		TELMIN+3	TELSOM+3				2
관광		M-ATM+3	NTOs+3				2
노동		ALMM+3	SLOM+3				2
보건		AHMM+3	SOMHD+3		- A+3 National Laboratoy Contact Point - A+3 Focal Poi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4
문화예술		AMCA+3	SOMCA+3			NEACH	3
사회복지		AMMSWD+3	SOMSWD+3				2
청소년		AMMY+3	ASOMY+3				2
과학기술		AMMST+3	COST+3				2
농촌개발 및 빈곤경감			SOMRDPE+3				1
재난관리			ACDM+3				1
광물			ASOMM+3				1
여성			ACW+3				1
정보		AMRI+3	SOMRI+3				2
교육		ASED+3	SOMED+3				2
기타						EAF, NEAT	2
총24개 분야	1	17	23	1	17	6	65

출처 : ASEAN 개황

ASEAN+3 FMM	: ASEAN Plus Three Foreign Ministers Meeting
ASEAN+3 SOM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 Meeting
CPR+3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Plus Three
CPR+3 WG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Plus Three Working Group
AMMTC+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SOMTC+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AEM+3	: ASEAN Economic Ministers Plus Three Consultations
SEOM+3	: Senior Economic Official Meeting Plus Three Consultations
AFMM+3	: ASEAN Plus Three Finance Ministers' Meeting
AFDM+3	: ASEAN Plus Three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AME+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on Energy
SOME+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SOME+3 EPGG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AEMM+3	: ASEAN Plus Thre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SOEN+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AMAF+3	: ASEAN Plus Three Minister on Agriculture and Forestry
SOM-AMAF+3	: ASEAN Senior Official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Plus Three Meeting
TELMIN+3	: ASEAN Plus Three 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 Meeting
TELSOM+3	: ASEAN Plus Three Telecommunication Senior Officials Meeting
ATM 3	: ASEAN Plus Three Tourism Ministers
NTOS+3	: ASEAN Plus Three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ALMM+3	: ASEAN Plus Three Labour Ministers Meeting
SLOM+3	: ASEAN Plus Three Senior Labour Officials Meeting
AHMM+3	: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Meeting
SOMHD+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Health and Development
AMCA+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SOMCA+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AMMSWD+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SOMSWD+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Y+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ASOMY+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Youth
COST+3	: ASEAN Plus Three on Science and Technology
SOMRDPE+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Rural Development
ACDM+3	: ASEAN Plus Three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ASOMM+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Minerals
ACW+3	: ASEAN Plus Three on Women
EAF	: East Asia Forum
NEAT	: 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ABMI 포컬그룹 회의	: Focal Group of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포컬그룹 회의)
CMI 실무급 회의	: Working Group for Review for the Chiang Mai Initiativ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실무급 회의)
전문가그룹 회의	: 기존의 감시 메커니즘 보완
ETWG	: 현 감시 메커니즘의 보완을 통해 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체제의 개발을 위한 경제 및 재무 모니터링 기술 실무급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EAVG와 EASG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상당 수준으로 제도화된 미래 시점에 한·중·일과 아세안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정상회의 틀로서의 장기 협력 구상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의 조기 출범을 추진하였고, 이를 ‘지역협력구도를 새로이 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한 일본, 인니, 싱가포르가 반대하면서 그 타협점으로 ‘조기 출범하되, 호주·뉴질랜드·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으로서 EAS가 2005년 아세안+3 회원국에 호주·뉴질랜드·인도 3국이 추가된 ‘아세안+3(한·중·일)+3(호주·뉴질랜드·인도)’ 체제로 조기 출범하였다. 여기에 2011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추가로 정식 참가함에 따라 EAS 회원국이 1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AS는 2005년 출범 당시 역내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으로 출발하여 2007년부터는 재난, 에너지, 금융, 교육,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응 등 5대 우선협력 분야에서 외교, 에너지, 환경, 재무 장관회의 및 EAS 고위급 회의를 연례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아세안+3에 비해 아직 덜 제도화된 협의체로 볼 수 있다. 2011년 정상회의부터는 5대 우선협력 분야 이외에 참가국들의 의견이 반영돼 아세안 연계성,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 및 비확산·해양안보 등 정치·안보 이슈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우리는 아세안+3가 지난 15년간 기능분야에서 협력을 축적해 왔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아세안+3를 통한 실질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아세안+3가 동아시아 공동체(EAC) 실현을 위한 유일한 매카니즘이 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으며, EAS가 경위가 어떠하였든지 이미 출범하였으므로, EAC 형성을 위한 EAS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AC의 구체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각국 마다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아

세안+3와 EAS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 발전하면 어느 시점에서 양 협의체가 수렴 구조로 가든지, 아니면 특정 협의체 중심으로 가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새로운 유동적 지역 질서의 변화 과정에서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지역협의체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2011년 10월 출범한 EAVG II가 내년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그간의 아세안+3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비전보고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 한국동남아학회에 대한 제언

첫째, 한-아세안 정부차원의 협력이 제도화된 만큼 이제는 정부와 민간 상호간의 협력 협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년을 맞이한 한국동남아학회가 지난 9년간 아세안+3내 유일한 산·관·학 대표간 지식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동아시아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아세안 각국 뿐 아니라 지역기구로서 아세안 및 한-아세안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대상 outreach 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정례 블루틴 발간, 언론 기고, 방송출연 및 수시 세미나를 개최하면 유익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물론 한-아세안 센터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셋째, 확대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 예를 들면, 한국동남아학회는 2001년 이후 단독 또

는 한국동남아연구소, AUN 등과 공동으로 한·아세안 학술교류 사업 시행하여왔으며, 2010년 사업의 경우 아세안(석사 2명, 학자 2명), 한국(4명) 석사과정 교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여사한 사업 확대를 통해 한·아세안간 지적 교류의 지평이 확대·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한국내 대아세안 외교 국내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창의적 방법으로 동남아 전문가를 육성하고 여타 지역 전문가를 한국동남아학회 회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아세안, 한·아세안, 한·아세안 대화관계, 아세안 외교, 동아시아 지역협력

〈참고문헌〉

- 박변순. 2011.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외교통상부 회의 발표자료. pp. 14-15.
- 이재현. 2011. “2011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지역 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pp. 13-14.
- 외교통상부. 2011. 『아세안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pp. 20-23.
- Goh Chok Tong. 2011. “Managing the New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A Southeast Asian Perspective.” *J-Global Forum*, May 9.
- Tay, Simon SC. 2010. *Asia Alone*. Singapore: John Wiley & Sons. pp. 52-56.
- JETRO. 2007. *China plus one*. 東京: JETRO. pp. 39-72.

- JETRO. 2009. 『ASEAN 經濟共同體』. 東京: NNA. pp. 234-235.
- 高橋. 2011. “これからの消費市場を読む～擴大する世界の中間層を狙え.” *JETRO*. pp. 48-50.
- 山本彦天兒 慧. 2007. 『新たな地域形成』. 東京: 岩波書店. pp. 37-6 2.

(2011. 12. 29. 투고; 2012. 01. 21. 심사; 2012. 02. 06. 게재확정)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s Diplomacy towards ASEAN

SUH Jeong-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is article is aimed exam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over the past two decad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ROK and ASEAN dialogue relations in 1989. With regard to the ROK's perspective, ASEAN is not only a significant friend in ensur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 major economic partner actively engaged in trade, investment, and construction. The ROK and ASEAN have frequently exchanged human resources, recording 4 million mutual visits per year. In particular, Korea's enhanced brand image, due to the *Hallyu* (Korean Wave) within the ASEAN region, has enabled ASEAN's preference for Korean mobile phones, electronic products, and durable goods to stand eminent.

Over the past two decades, ASEAN-ROK relations have developed since the early establishment period and negotiations for a permanent consultative mechanism, followed by cooperation expansion and deepening stages. More importantly,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t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in Jeju Island in June 2010, the ROK government initiated pla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ow-carbon green growth, and cultural and human resources exchanges, which are the three main policies of the ROK government's diplomacy toward ASEAN. In addition, at Hanoi ASEAN-ROK Summit in October 2010, it is noteworthy that the existing ASEAN-ROK comprehensive relations had been elevated to a strategic partnership. At present, ASEAN-ROK relation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24 cooperation mechanism meetings on issues ranging from politics/security, econom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 transportation, the signing of the ASEAN-ROK FT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ROK Center. A representative mission to ASEAN in Jakarta is also planned for 2012.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both the ROK and ASEAN have endeavored to expand cooperation at the East Asia level.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3 has served as the most institutionalized mechanism in East Asia. The expansion of the East Asia Summit (EAS) by the accession of the US and Russia has ushered in a new era in the history of the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At such time, a new vision would be necessary to guide the future of East Asia. In this regard, the ROK government will take the lead in submitting the EAVGII report to the ASEAN+3 Summit in 2012, successive to the 2001 EAVG report.

Key words: ASEAN, ASEAN-ROK,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SEAN diplomacy,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